

정답 가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④	②	③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③	④	④	③	①	②

해설

1.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 ① candid(솔직한) = frank(솔직한)
- ② logical(논리적인)
- ③ implicit(암시하다)
- ④ passionate(열정적인)

2.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 ④ noticeable(두드러지는, 눈에 띄는)=remarkable
- ① passive(수동적인)
- ② vaporous(수증기 가득한, 수증기의)
- ③ dangerous(위험한)

3.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 ③ inside out(뒤집어진, 속속들이) = thoroughly(철저히)
- ① eventually(궁극적으로, 결국)
- ② culturally(문화적으로)
- ④ tentatively(잠정적으로, 실험적으로, 시험적으로)

4.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 ① pay tribute to(~에게 경의를 표하다) = honor(칭찬하다)
- ② compose(구성하다)
- ③ publicize(알리다, 대중에게 공개하다, 홍보하다)
- ④ join(합류하다, 합세하다)

5.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gray 불가산명사를 받는 much도 올바르게 쓰였고 전치사 to 뒤에 간접의문문의 순서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으로 쓰여 올바르게 쓰였다.

① “those of -> that of”

비교구문에서 비교대상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 비교하는 대상이 단수이면 that of 복수이면 those of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A와 B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과 구조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앞에 A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이 the traffic (교통) 이라는 단수명사이므로 B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은 복수인 those가 아니라 단수인 that으로 써준다.

② “when I’ll be lying -> when I am lying”

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현재시제를 쓴다. “when ~”절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로 써야한다

③ “the wealth -> the wealthy”

“the + 형용사”는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the wealthy”로 바꿔줘야 한다.

6.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주장/명령/요구/제안의 동사뒤에 목적어로 that절이 올 때 “~해야한다”는 문맥이면 that절에 should를 생략한 동사원형을 쓸 수가 있다. 참고로 동사 “cease”는 “중단되다”의 의미로 자동사로 쓰인다.

① “have raised -> have been raised”

“raise”는 “~을 들어올리다, 발생시키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이므로 뒤에 목적어를 써야한다. 문맥상 뒤에 목적어도 없고 주어가 “발생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수동태로 바꿔 써야한다.

③ “will blow -> blow”

문맥상 미래시제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완료) 시제로 써줘야 한다.

④ “are survived => survived”

survive는 자동사로 주로 쓰인다. 그래서 능동태로 써야한다. 타동사일 때는 “~보다 오래 살아남다”로 해석해야한다.

7.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③ “from promoting -> from being promoted”

“prohibit A from -ing”는 “A가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맥상 그(him)가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진되는 것”이 막힌 것이므로 being promoted 수동형으로 바뀌준다

① adapt oneself to B “~에 적응하다”로 올바르게 쓰였다.

②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할 수 밖에 없다”로 올바르게 쓰였다.

④ take apart “~을 분리하다, 분해하다”로 올바르게 쓰였다.

8.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다섯 번째 줄 “Hearing what other people have to say ~” 부분과 그 다음 문장 “Speaking up is important” 부분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중반부 “There are three prerequisites for conversation to be meaningful” 부분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위한 3개의 전제조건을 언급하면서, 이 글의 요지는 보기 ②번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임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네 번째 줄 “It’s worth considering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 as well as what purpose art serves, now and in the future” “예술가들이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지, 그리고 예술은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될지를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로 이 부분이 글의 주제가 된다. 이 문장 다음부터 전부 예술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부연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보기 ①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가 적절하다.

10.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마지막 문장 “and other gun crimes in ~”부분에서 미국의 총기 범죄는 꾸준히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 ④번의 increased 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11. 정답: ④

해석/어휘:

① A: 언제까지 돈을 내야 하죠?

B: 다음 주 까지 내시면 됩니다.

② A: 이 집을 부쳐야 할까요?

B: 아니요. 작아서 기내에 실을 수 있어요

③ A: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만나?

B: 너의 사무실로 8시 30분까지 데리러 갈게

④ A: 요리대회에서 상을 탔어

B: 너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해설: 해석참고

12.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 위에서 두 개의 방 종류 “deluxe room / luxury suite”에 대해 언급하고 빈칸 뒤에서 그 두 방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므로 빈칸은 차이점을 물어보는 보기 ③번의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이 적절하다.

13.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A)의 앞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언제 공부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A) 뒤에선 홈스쿨링의 비평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역접의 접속사 “In contrast(반대로)”가 적절하다. (B)의 앞에선 연구결과에 대한 얘기로 홈스쿨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해주지만 (B)뒤에선 홈스쿨링의 비평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므로 역시 역접의 접속사 “In spite of this(이것에도 불구하고)”가 적절하므로 보기 ②번이 적절하다

14.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네 번째 줄 끝 “But increasingly ~”부터 글의 주제가 언급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은 강박관념과 같은 존재였지만 점점더 젊은 직장인들은 일에 있어서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므로 보기 ③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이 적절하다

15.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의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에 대한 한가지 예시로 “(C)의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driving”으로 받고 이 다음에 운전대에 대해 언급하는 (A)로 이어진 후 (A)의 마지막의 “Is there ~?”부분의 답을 해주는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6.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앞 부분에서 뇌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일련의 몸에서의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 ②번의 “so they are ready ~” 앞 부분까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so 부터 그런 반응으로 인해 위협에 맞설지 도망갈지 결정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보기 ③번에선 그러한 과정이 뭐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 ④번에선 갑자기 ‘인간이 의식적으로 분비선을 통제한다는 주제문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보기 ④번이 전체 글의 흐름과 어긋난다.

17.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It was then he remembered” 부분에서 그가 그때 기억해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기억해내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본문에서 ③번 뒤에 “thought no more of it ~” 부분에서 차사고 소식을 들을 때까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고 ④번 뒤에서 최초의 안전유리를 발명했다고 하므로 보기 ④번에 들어가서 중간 다리 역할 “It was then he remembered(그때, 그가 기억해냈다)”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18.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중 후반부의 “Yes, the city of Dubrobnik~ ” 문장에서 보면 “to curb cruise ship tourism(크루즈 ship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보기 ③번의 확대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19.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A) 앞에서는 유기체가 carbon-14를 흡수하는데 그 유기체가 죽으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흡수된 carbon-14는 천천히 질소로 분해되었다 했으므로 빈칸 (A)에는 decreases가 적절하고 이를 토대로 (B)에서 유기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dead가 적절하다

20.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 앞에서부터 계속 종이 멸종하고 새로운 종이 태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유기체에서 다세포를 가진 형태로

도 진화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빈칸 뒤에서도 분류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생물학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적절한 것은 보기 ②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이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어휘: 상대적으로 작년과 같이 무난한 어휘들이 출제되어서 기출 문제 및 어휘책을 꾸준히 외워오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휘는 어디까지나 개인 편차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문법: 문법의 경우 지엽적인 문법이 아닌 핵심문법 위주로 출제 되었으며 주목할 점은 트렌드가 밑줄형 문제가 아니라 영작 / 정오행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법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출제 범위도 수동태 / 관용 표현 / the + 형용사 등 핵심 문법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로는 2문제가 출제되었고 숙어 및 표현형 어휘를 묻는 생활영어가 아닌 문맥을 통해 두문제 충분히 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 독해의 난이도가 작년 시험 / 제작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쉽게 출제되었으며 이정도면 올해 지방직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제나 요지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문맥을 읽지 않고 해석을 잘 했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짚을 수 있었고, 내용일치도 단어를 바꿔놓으면서 문맥적으로 꼬아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형들도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무난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19, 20 빈칸의 경우 역시 문맥을 따라 꼼꼼히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을 짚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독해의 추세는 대단한 논리력, 추론력 보다는 해석위주로 학습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총평: 전체적으로 올해 지방직과 비슷했다는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어휘/생활영어의 난이도도 무난했고 독해의 경우 다시한번 해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고 문법의 경우도 핵심문법위주로 학습하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편차가 있으므로 난이도에 대해선 쉽게 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9급 시험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노력하신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